

지역 경제, 봄바람은 언제 불까

광주전남 제조업 등 4월 체감경기 소폭 개선...매출 전망 하락 고물가 등 '3고'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내수부진 등 우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봄바람은 언제나 불어올까.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침없이 오르던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기 시작하고, 치솟던 기준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덜해지면서 지역기업들도 경기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워낙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등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전하다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58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체감경기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제조업 업황BSI는 '75'로 전월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 다음달 업황전망BSI도 76으로 전월에 비해 3포인트 올랐다.

4월 중 비제조업 업황BSI 역시 74로 전월에 비

해 8포인트 상승, 다음달 업황전망BSI도 74로 전월에 비해 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4월 매출BSI는 77로 전월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것에 이어 다음달 매출전망BSI도 76으로 전월에 비해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비제조업은 4월 중 매출BSI가 81로 전월에 비해 4포인트, 다음달 매출전망BSI도 83으로 전월에 비해 7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사업체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업체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영여건으로 내수부진(18.8%)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8.3%),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3.5%), 원자재 가격상승(11.0%) 등의 불만이 계속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경기전망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2.1로 0.1포인트 올랐다. 이는 4개월 연속 소폭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전월(79.0)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9.2로 전망됐고, 전남은 전월(85.0)과 동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4.5로 전월(84.1) 대비 0.4포인트 올랐고, 비제조업은 79.2로 전월(79.6)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전망이 소폭 개선됐으나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61.2%·이하 복수응답)과 내수부진(55.5%), 원자재 가격 상승(51.7%), 업체간 과당 경쟁(36.8%),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33.5%) 등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낫달 연속 조금씩 개선됐는데, 이는 물가상승을 둔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이 기업들의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전히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여수 산업단지 전경.

한전, 여수산단 '넷제로' 국책사업 수주

산자부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한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2년 연속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및 그린수소 기반의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전은 산업단지별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했고 여수 산단은 주관기업, 대구 성서산단은 참여기업으로 각각 선정됐다.

한전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는 여수산단 사업

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380억원을 투입해 석유화학 중심의 노후 산단을 글로벌 '넷제로(Net-Zero)'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여수형 일차리와 연계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그린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대구 성서 산단 사업은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거래 및 인증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황금연휴' 나들이...유통가 먹거리 할인전

이마트, 내달 3일까지 국산 한우 최대 40%·바다장어 1+1 롯데마트, PB 디저트 행사...SSG닷컴 호주축산 50% 할인

유통업체가 휴일이 많은 '황금연휴'를 이용해 나들이에 나서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먹거리 할인 행사를 펼친다.

27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마트는 다음달 3일까지 행사카드 결제 시 국산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한다.

이마트가 준비한 물량은 약 60t(50억~60억원)으로 평상시 3주간 판매되는 양이다.

또 손질된 바다장어(700g·4만9800원)를 1+1로 판매한다. 이마트는 평상시 두 달 판매분인 25t

의 물량을 준비했다.

연휴기간 '집콕족'을 위해 연어·광어 초밥, 조정순살 닭강정 바로 먹을 수 있는 신선·가공식품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요일별로 수박과 소시지 떡고치, 대추 방울토마토, 올리브오일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하루 특가' 행사도 한다.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PB) 디저트 5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가정간편식(HMR) PB '요리하다' 상품

으로 버터 소금빵과 수플레 톨케이크(커스타드·초코 2종), 미니슈(커스타드·딸기 2종)를 선보인다. 요리하다 상품은 100년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 제과 전문기업 파스코(PASCO)와의 기술 제휴로 만들어졌다.

롯데마트 디저트 상품군은 2020년부터 매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주력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상승했다.

SSG닷컴(쓱닷컴)은 호주축산공사와 손잡고 소고기 할인 행사를 연다.

다음달 3일까지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와 곡물 찜갈비, 외국 갈비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상의, 운영석 광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여수상공회의소는 27일 지역 상공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와 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세부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은 현재 시행 중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입 지원 제도, 기업승계 지원

제도와 함께 기업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기업인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운영석 청장은 또 신설된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운영석 청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기업인들과 소통을 지속해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중국 최대 가전전시회 AWE에서 89형 마이크로 LED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중국서 89형 마이크로 LED TV 공개

가전전시회 'AWE 2023' 참가 한국·중동·유럽 등서도 출시 예정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5.81(+10.98)
↑ 코스닥	850.21(+19.77)
↑ 금리(국고채 3년)	3.288(+0.029)
↑ 환율(USD)	1338.00(+1.70)

삼성전자는 27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가전전시회 'AWE 2023'에서 89형 마이크로 LED를 처음으로 중국에 선보이는 등 초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AWE는 세계 3대 가전·전자산업박람회 중 하나로 중국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 AWE에는 120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89형 마이크로 LED 중국 시장에 첫 출시를 시작으로 한국·중동·북미·유럽 등에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에 110형 마이크로 LED를 출시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89형 마이크로 LED를 시작으로 76·101·114형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초고화질·초대형 제품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한다. 모듈 형태로 설치 가능해 모양·비율·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사용자가 맞춤형 화면을 완성할 수 있다.

기존 TV와 달리 베젤이 없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벽과 스크린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화, 대우조선 품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공문을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한화가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한국판 룩히드마틴' 탄생이 임박했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

한화는 27일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

제도와 함께 기업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기업인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합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경영정상화의 길을 올리게 됐다.

새 사명은 '한화오션'과 '한화조선해양'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중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입국 때 신고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한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의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

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 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달 앞당겨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